

출장보고서

I. 출장개요

1. 출장자: 손기태
2. 출장기간: 2009. 9.19~9.24
3. 출장지: 싱가포르
4. 출장목적: 싱가포르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조사를 위해 정부기관 및 연구자 방문 인터뷰

II. 출장일정

일자	행선지	활동사항	비고
09-09-19	싱가포르 창이공항	이동	
09-09-20	현대건설	면접	
09-09-21	호텔	면접준비	공휴일
09-09-22	통신청, 관광청, 코트라	면담	
09-09-23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면담	
09-09-24	인천공항	이동	

Ⅲ. 활동 내용

1. 현대건설

☐ 방문일시

- 2009년 9월 20일(일) 오전 10시~11시

☐ 인터뷰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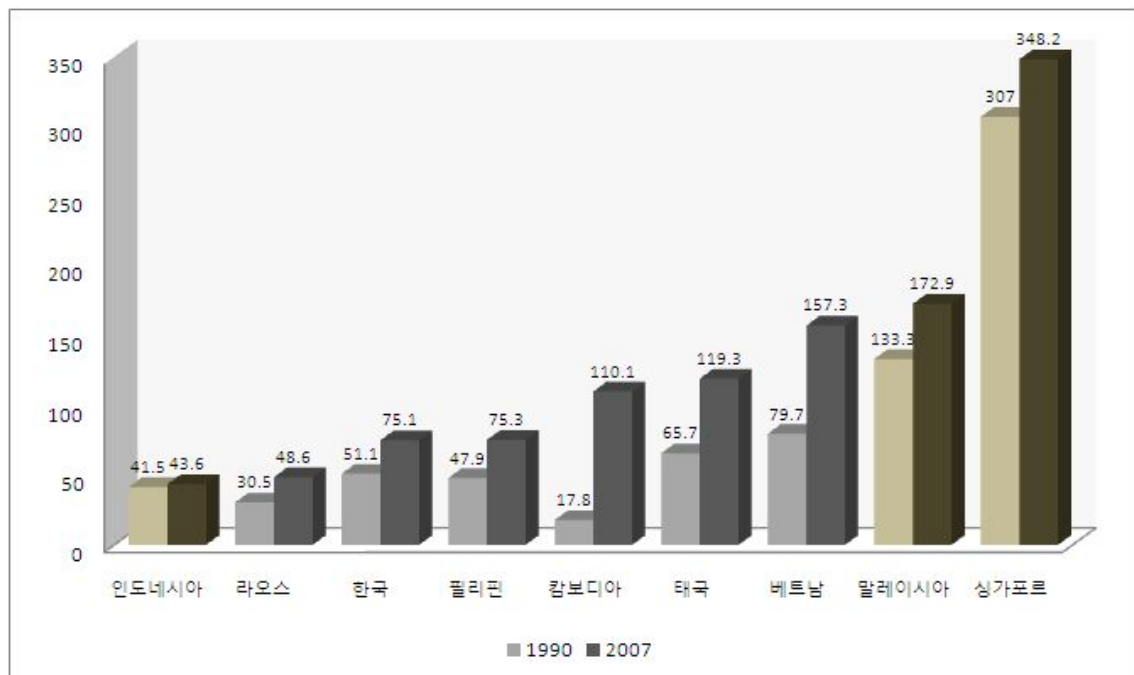
- 육도경 (Administrative Manager)

☐ 면담내용

가. 해외의존도

그림 1. 아세안 국가들의 무역의존도

(단위: %)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 Key indicators 2008.

아세안 국가들, 특히 선발주자들은 개방정책을 통하여 성장하였다. 1970년대부터 이들은 수출주도형공업화를 추진하여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냈고, 그 결과 해외의존도가 대체로 높은 편이다. 특히, 외자유치 및 수출지향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다른 아세안국가들보다도 무역의존도(GDP대비 수출입)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 외의 여타 국가들도 수출주도성장을 추진하면서 모든 아세안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1990년과 비교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1990년대 본격적으로 시장을 개방을 한 태국(1990년 65.7%에서 2007년 119.3%), 베트남(1990년 79.7%에서 2007년 157.3%), 캄보디아(1990년 17.8%에서 2007년 110.1%)등의 무역의존도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나. 무역

표 1. 경상수지

(단위: 백만 달러, %)

	경상수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한국	28,174	14,981	5,385	5,876	4.1	1.9	0.6	0.6
싱가포르	19,888	27,468	35,383	39,209	18.1	22.7	25.4	23.5
인도네시아	1,564	278	10,859	10,492	0.6	0.1	2.9	2.4
말레이시아	15,079	20,693	25,490	29,209	12.1	15.0	16.3	15.6
브루나이	2,896	4,038	5,232	4,980	36.8	42.4	45.6	-
캄보디아	-435	-606	-521	-670	-8.2	-9.6	-7.2	-7.8
라오스	-189	-536	-453	-769	-8.0	-17.8	-13.7	-19.7
미얀마	251	444	1,032	1,803	2.4	3.7	7.1	9.1
필리핀	1,628	1,984	5,347	7,119	1.9	2.0	4.5	4.9
태국	2,767	-7,642	2,315	14,049	1.7	-4.3	1.1	5.7
베트남	-1,564	-497	-164	-6,992	-3.4	-0.9	-0.3	-9.9

자료: UN COMTRADE.

경상수지는 아세안 국가 중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을 제외하고 모두 흑자(2007년 기준)로, 그 액수는 980억 달러에 달하였다. 특히, 싱가포르는 경상수지 흑자가 392억 달러(2007년)로, GDP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3.5%였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유가 및 고무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수출액이 크게 늘어나 2007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대비 14.6% 증가한 29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루피아를 평가 절하한 인도네시아 역시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로 장기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 상품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석유, 천연가스, 고무, 주석 등의 원자재 수출 비중이 큰 인도네시아는 2004~2005년에 비해서 2006~2007년에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 외국인직접투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이미 1960년대부터 다국적기업을 유치하였고, 인도네시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1980년대 중반 2차 석유파동 후 유가폭락을 겪으면서 수출에서 원유의 비중을 줄이고 제조업으로의 다변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2007년 아세안 전체에 유입된 외국인투자액은 약 496억 달러로 싱가포르에 약 241억 달러가 유입되었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각각 66억 달러, 34억 달러가 유입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표 2. 외국인 직접 투자(실질가격, 2000=100)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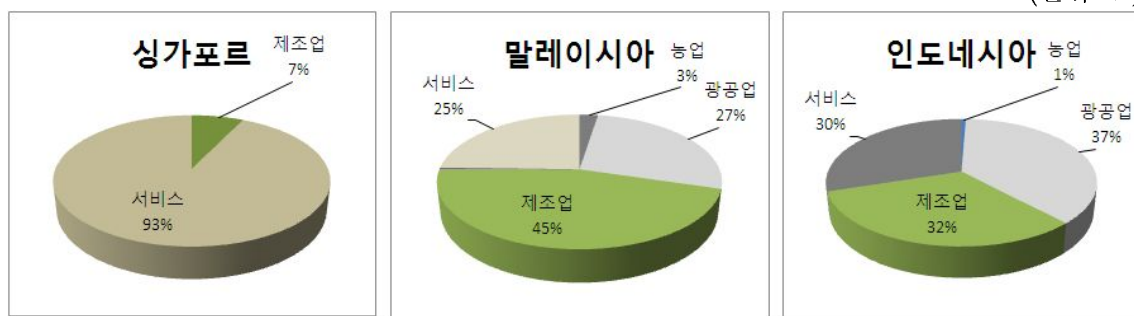
	1980년	1990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싱가포르	1851.6	5574.7	16484.5	11664.2	13930.2	24137.1
말레이시아	1725.3	3939.5	3787.6	2358.9	3411.4	6615.9
인도네시아	1668.1	4444.4	-4495.0	-397.1	5261.4	3443.7
브루나이	n/a	9.1	549.2	3356.6	208.5	119.6
캄보디아	n/a	n/a	148.5	79.8	325.8	665.0
라오스	n/a	72.8	34.0	14.0	16.8	176.1
미얀마	11.0	1782.0	208.0	136.8	89.7	111.6
필리핀	983.9	1272.7	2241.3	425.8	1423.4	2079.6
태국	427.5	3764.9	3356.5	5031.9	7179.2	7875.7
베트남	n/a	911.6	1286.0	1279.6	1523.9	4376.3

자료: UNCTAD, FDI STAT.

금융 및 통신과 같은 서비스 분야가 발달된 싱가포르에는 외국인직접투자의 93%가 서비스산업에 투자되었다. 반면 수출에서 원자재 비중이 높고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광공업(37%)에 가장 많은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졌고 제조업에 32%, 서비스산업에 30% 투자되었다. 싱가포르보다는 늦지만 인도네시아보다는 일찍 제조업성장에 힘쓴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제조업(45%)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림 2. 부문별 외국인 직접 투자

(단위: %)



자료: ASEAN Secretariat - ASEAN FDI Database

2. 통신청

☐ 방문일시

- 2009년 9월 22일(화) 오전 10시~11시

☐ 인터뷰 담당자

- Ms. Wong Sook Mun Karen (Senior Manager-Competitive Management)

☐ 면담내용

가. 통신

1) 유무선통신

2000년 4월 통신시장이 전면 자유화되면서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외 기업 모두 싱가포르에서 시설기반(facilities-based)서비스나 서비스기반(service-base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두 서비스는 통신시스템시설의 소유 유무로 결정된다. 통신시스템을 소유한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에 이를 시설기반서비스라 하고, 기업이 통신시스템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를 서비스기반서비스라 한다.

시장의 자유화에 따라 과거 독점기업이었던 SingTel은 MobileOne이나 StarHub(정부연계기업)와 같은 기업으로부터 경쟁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초기투자자본이 많이 들어 진입장벽이 높은 유선통신부문에서 SingTel은 여전히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어 2009년 1분기 현재 전체 시장의 90.5%를 점유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국(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IDA)은 SingTel의 독점력 남용을 방지하고 고객의 서비스제공자 전환을 돕기 위해서 SingTel의 경쟁사가 SingTel의 시설과 연결하고자 할 때 비용에 기초한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IDA는 이 가격과 SingTel 시설 연결 약관을 공개함으로써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돕고 있다.

표 3. SingTel의 부문별 시장점유율 (2009년 1분기 기준)

(단위: 천 명, %)

	가입자	시장점유율
유선통신	1,697	90.5
개인	933	84.3
기업	764	99.3
초고속인터넷	498	48.8
이동통신	2,976	46.4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Regulatory Development-IDA Offers Some Freedom over SingTel Licence Obligations, 2009. 6. 5.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진입장벽이 낮은 부문부터 통신서비스제공자가 증가하였다.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유선통신의 경우, 과거 SingTel의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 현재 StarHub이 SingTel과 경쟁을 벌이는

복점구조를 띠고 있다. 무선통신시장에는 이 두 개의 서비스 제공자 외에 MobileOne이 시장점유율을 차츰 높이면서 이 시장은 이제 과점의 형태로 가고 있다. 유무선통신에 비해 초기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인터넷서비스나 음성서비스 부문은 이미 완전경쟁의 모습 보이고 있다.

표 4. 통신서비스 제공자 현황

유선전화 서비스제공자	무선전화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서비스제공자	음성 서비스제공자	IP전화 서비스제공자
2	3	87	379	37

자료: Key Telecom Market Statistics. IDA.

2) 컴퓨터와 인터넷

인적자본 증대와 기업 경쟁력 향상에 인터넷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싱가포르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의 최첨단에 위치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세계 최초의 전국적 멀티미디어 통신망인 SingaporeONE을 들 수 있다. 1998년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 전역을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하여 국민이 다양한 멀티미디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전국적으로 1Gbps 이상의 다운로드 속도를 낼 수 있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서 2006년 3월 차세대 전국초고속인터넷망(Next Generation National Broadband Network: Next Gen NBN)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8년 주택거주자의 컴퓨터보급률은 80%이고, 특히 개인주택거주자의 경우 보급률이 94%에 달한다. 같은 해 인터넷보급률도 컴퓨터보급률과 비슷한 추세를 보여, 전체 주택거주자의 76%, 개인주택거주자의 경우 91%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은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보편화되었다. 특히 정보통신, 금융,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교육과 같은 지식집약 분야에서 거의 모든 기업이 컴퓨터, 인터넷, 광통신, 웹현실화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표 5. 산업부문별 정보통신 이용률 (2008년 기준)

(단위: %)

	컴퓨터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웹현실화
정보통신	98	98	96	79
금융보험	94	89	83	38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93	88	83	46
교육	86	84	70	65
행정, 보조	85	83	79	47
보건, 사회사업	81	77	64	36
부동산, 임대	76	72	63	26
도소매	75	71	63	33
건축	72	67	57	16
제조	72	65	58	30
예술, 연예, 오락	71	66	62	45
운송, 저장	69	65	57	29
호텔, 음식점	58	51	46	36
기타 서비스	52	48	42	33
기타	71	71	66	35

자료: Annual Survey on Infocomm Usage by Enterprises for 2008. IDA.

3) 우리나라 투자자에 대한 제한

통신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만큼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 단, 기본통신과 이동통신서비스 부문의 외국인 지분 참여는 73.99%(직접투자 49%, 간접투자 24.99%)로 제한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통신시장은 경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경쟁법보다 시장경쟁도입의 강도가 낮은 자체규제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 따라서 통신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유지하려는 SingTel이 시장경쟁을 억제하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SingTel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송전관을 경쟁사가 공용하기 어렵게 하거나, 경쟁기업의 SingTel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쟁기업이 SingTel 소유의 회로를 이용해서 가정과 기업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3. 관광청

☐ 방문일시

- 2009년 9월 22일(화) 오후 2시 ~ 3시

☐ 인터뷰 담당자

- Ms. Lorraine Tan (Management Executive-Tourism Shopping & Dining Division)
- Mr. Cheng Chek Lim (Management Executive-Healthcare)
- Ms. Jean Ng Joo Lin (Assistant Director-Retail)

☐ 면담내용

가.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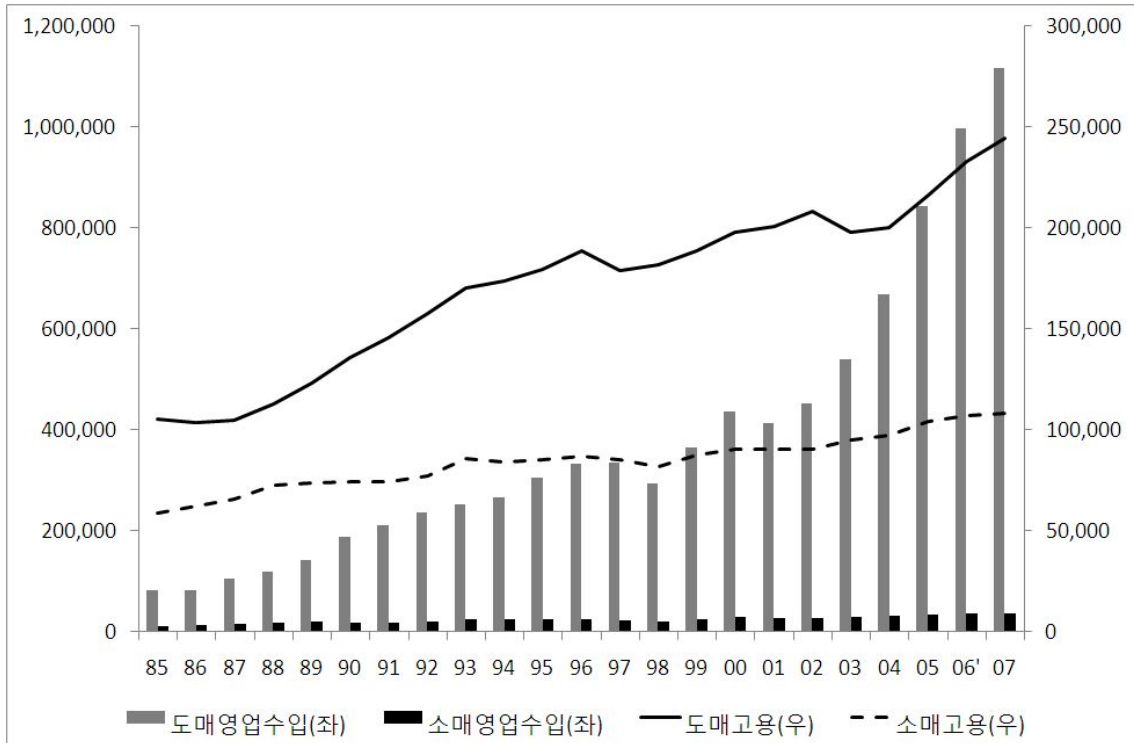
1) 도매

싱가포르의 도매는 크게 국내도매와 해외도매로 구분된다. 국내도매는 국내의 공급자나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상품을 받아 가공 없이 국내 도소매상 또는 제조업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일컫는다. 이 상품을 해외로 도매수출, 역외거래, 재수출, 환적할 때에 이를 국외도매라고 한다.

싱가포르의 유통부문에서 고용자수 또는 영업수입 면에서 도매가 소매보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성장속도도 빠르다. 2007년 현재 24만여 명이 도매에 종사하면서 1조 2,183억 싱가포르달러의 도매영업수입을 올린데 반해 소매는 도매 고용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10여만 명이 396억 싱가포르달러의 거래를 했다. 또한 1985~2007년 사이 도매영업수입은 실질가격으로 연평균 56.2% 성장한데 반해 소매영업수입은 연평균 8.8% 성장하는 데 그쳤다.

그림 3. 도소매 영업수입 및 고용 추세 (실질가격, 2000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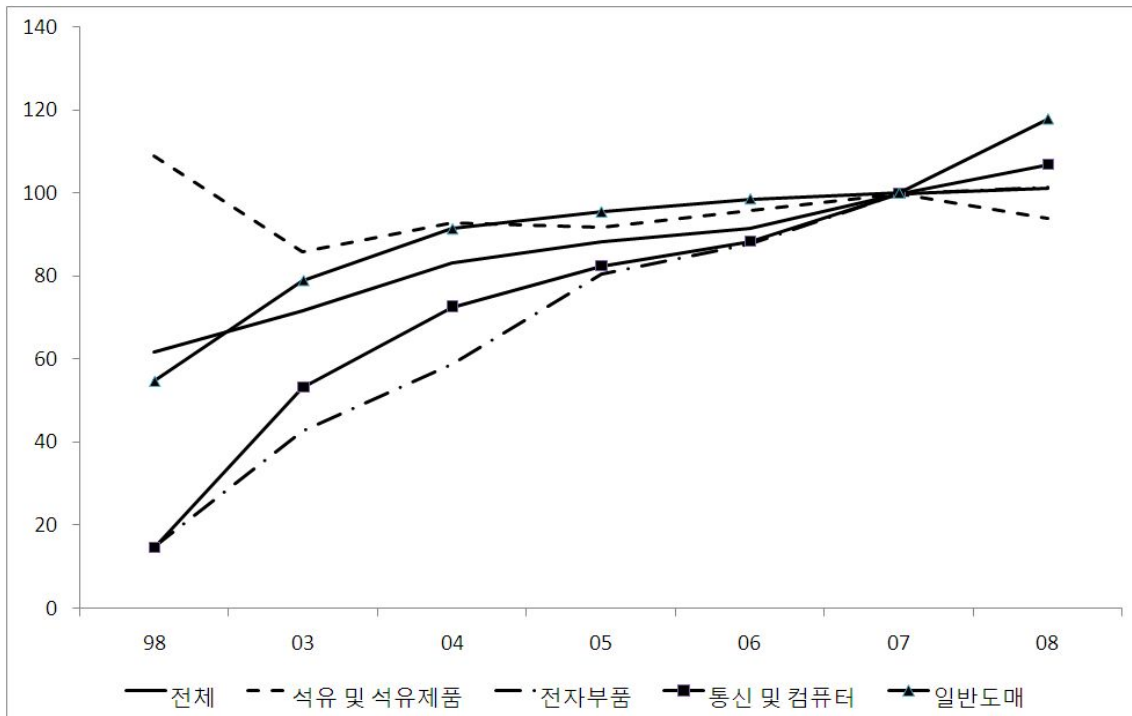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명)



자료: Singstat Time Series Online.

해외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에서 해외도매가 1998~2008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하였다. 전체 해외도매가 63.7% 성장하였고, 부문별로 전자부품은 586%, 통신 및 컴퓨터 부문은 627% 성장하였다. 이에 비해 국내도매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동기간 국내도매 성장률은 24.1%이다.

그림 4. 주요부문 실질가격 해외도매지수 변화 (2007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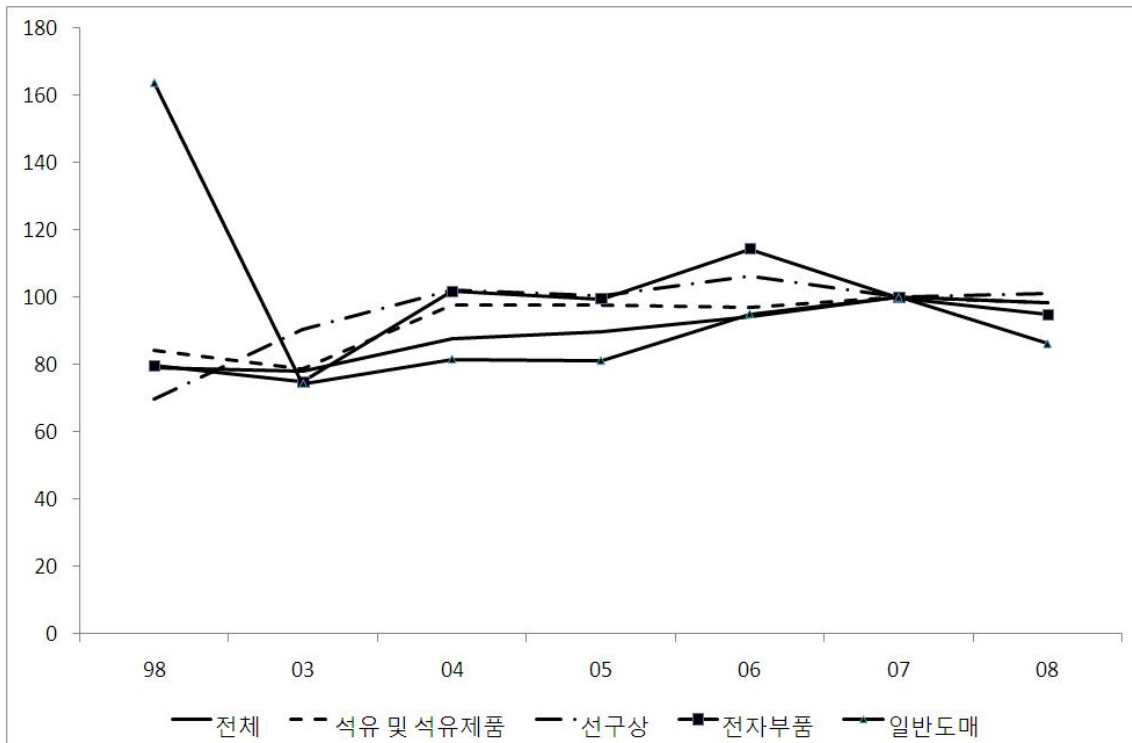


주: 기타 부문을 제외하고 2006년 Annual Survey of Wholesale Trade에서 해외도매부문에
서 매출비중 큰 4개 부문을 선정함. 이 네 부문 중 석유 및 석유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도매가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자료: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2009.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싱가포르를 국제무역 허브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싱가포르 국제기업청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은 2001년 6월 세계무역인프라프로그램(Global
Trader Programme)을 개시하였다. 현재 7개의 세계 10대 에너지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싱가포르에 아시아무역본부를 두고 있다. Seagate, Texas
Instruments, Qualcomm, Infineon과 같은 세계 주요 전자회사가 싱가포르에
세계 또는 지역유통센터를 세우고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전자제품은 국외도
매 중 석유 및 석유제품 다음으로 큰 판매 비중을 보인다.

그림 5. 주요부문 실질가격 국내도매지수 변화 (2007년=100)



주: 기타 부문을 제외하고 2006년 Annual Survey of Wholesale Trade에서 해외도매부문에
서 매출비중 큰 4개 부문을 선정함. 이 네 부문 중 석유 및 석유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도매가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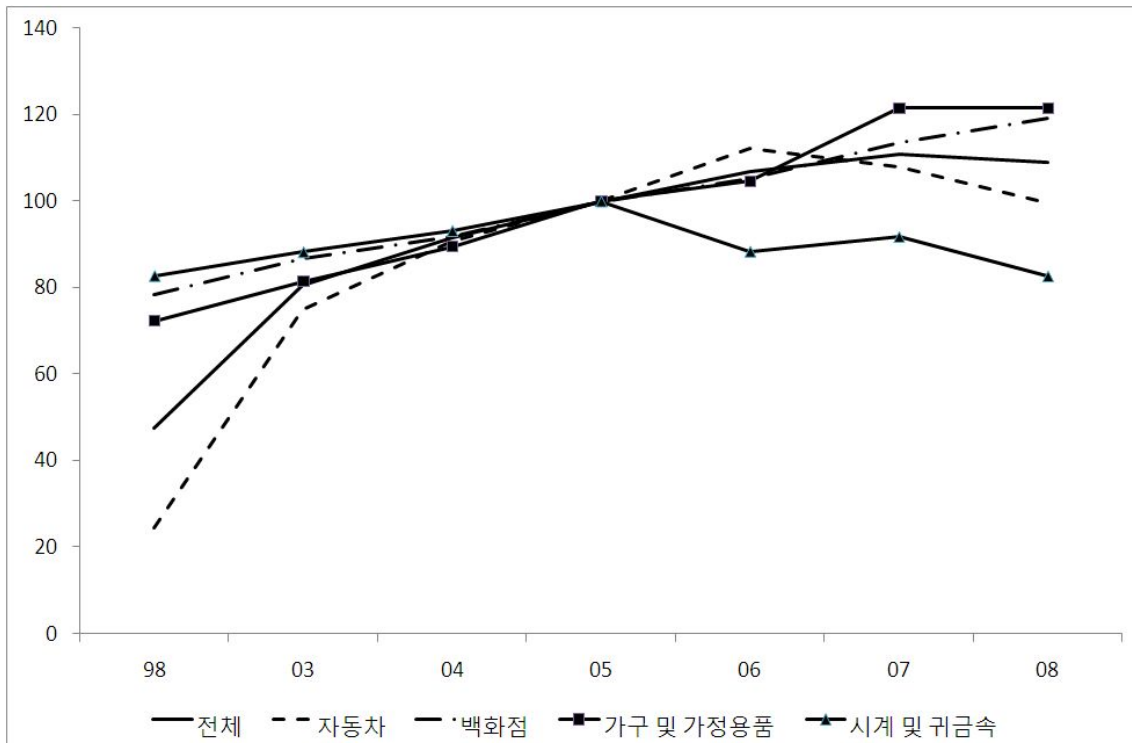
자료: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2009.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 소매

1인당 소득수준이 높은 싱가포르에서 VivoCity, Suntec City Mall, Ngee Ann City, Wheelock Place, Wisma Atria, Heeren, Paragon Shopping Centre 등의 대형쇼핑몰이 소매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체인점 등이 싱가포르 교외와 교내에서 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소매점이 계속해서 개축 또는 증축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소매 중 백화점과 가구 및 가정용품 부문이 꾸준히 성장하였다. 자동차 부문은 같은 기간 동안 대체적으로 큰 성장을 하였지만, 자동차 소유와 이용에 따른 높은 부담 때문에 최근 자동차 부문의 성장이 주춤하고 있다.

그림 6. 주요부문 실질가격 소매업지수 (2005년=100)



주: 기타 부문을 제외하고 2004년 Annual Survey of Retail Trade에서 소매부문에서 매출비 중 큰 4개 부문을 선정함. 이 네 부문 중 자동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시계 및 귀금속이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자료: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2009.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싱가포르 정부는 소매업을 관광업과 연결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싱가포르 관광청(Singapore Tourism Board)과 소매점연합(Singapore Retailers Association) 등 다수 기관이 1994년부터 매년 주관하고 있는 싱가포르 대세일(Great Singapore Sale)이다. 5~7월 중 8주 동안 벌어지는 이 행사기간에 주요 상점과 쇼핑 몰은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또는 특정 주말에는 자정이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관광객은 관광객 특별 카드 (Tourist Privilege Card)를 통해서 의류, 귀금속, 전자제품 등을 특별할인가에 구입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투자자에 대한 제한

시장개방에 적극적인 싱가포르 정부는 도소매 부문에 특별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4. 코트라

☐ 방문일시

- 2009년 9월 22일(화) 오후 4시~5시

☐ 인터뷰 담당자

- Mr. Wee Chye Hin (Manager)

- Yoo Sun Ah (Manager)

☐ 면담 내용

가. 무역

외화획득에 기여할만한 천연자원이 전무하고 국토가 좁은 싱가포르의 동남아시아 교역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서 성장하였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1993년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서명 후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3개 교역국과 13개 지역 또는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만큼 싱가포르는 세관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출입 절차는 세관이 관리하는 TradeNet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TradeNet을 통하여 수출입 허가 등 전자적으로 문서를 처리할 경우, 과거 2~7일 걸리던 절차를 10분으로 줄어들었다.

신속한 수출입 절차 외에 싱가포르 정부는 최소한의 수출입 규제만을 유지하고 있다. 단, 무기, 화생방 물질 등 전략상품 수출 시 허가가 필요하고 고무 수출 시 면허가 필요하다. 그 외에 UN이 지정한 국가에 대한 무기 및 군사 관련 상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

고 수출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 수입 역시 자유로워서 주류, 담배, 자동차, 석유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¹⁾ 보안, 보건, 환경 또는 UN과 기타 국제협약의 이유로 제한된 극소수의 상품 외에는 수입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자유무역지구

2008년 싱가포르의 재수출 비율은 총수출의 거의 절반인 48.1%를 기록하였고 2009년 1분기의 재수출 비율은 50.2%로 전년동기대비 2.4%p 증가하였다. 이처럼 지리적 특성상 재수출의 비율이 큰 싱가포르에는 4개의 해상운송지구와 1개의 항공운송지구 등 총 5개의 자유무역지구가 재수출에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²⁾ 이 지구에서 주류와 담배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관세나 상품서비스세가 면제되고 기간의 제한 없이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수입 제한 및 금지 품목이 아닌 한 세관의 허가 없이 환적의 목적으로 상품을 자유롭게 유출입할 수도 있다.

표 6. 재수출 비중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8년				2009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수출	382,532.0	431,559.2	450,627.7	476,762.2	118,690.3	124,778.0	130,200.1	103,093.8	85,734.7
재수출	175,084.3	204,181.2	215,724.7	229,144.2	56,730.0	60,467.5	60,841.5	51,105.3	43,049.8
기계 및 운송설비	129,673.6	149,124.2	152,137.3	153,905.6	38,755.0	38,937.3	41,031.2	35,182.1	28,076.1

자료: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First Quarter 2009.

다. 조세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와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서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을 지속적으로 내렸다. 그리하여 1986년 이전 40%에 달하던 법인세율은 2003~4년 22%에서 2005~7년 20%, 2008년 18%까지 하락하였고

1) 단, 일종의 부가가치세인 7%의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가 수입상품에 부과된다.

2) 해상운송지구는 Keppel, Jurong, Sembawang, Pasir Panjang이고 항공운송지구는 Changi이다.

2010년에는 17%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최고 개인소득세율도 2006년 22%에서 21%로, 2007년에 다시 20%까지 내렸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정부는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하락에 따른 세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상품서비스세율을 2004년에 4%에서 5%로, 2007년 7월 1일부터 다시 7%로 상향조정하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세율조정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 외에도 무역, 투자, 금융을 위해서 다양한 조세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 친화적 조세정책으로 싱가포르에 소재한 기업의 80% 정도가 실질적으로 10%미만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표 7. 정부운영비 구조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세수입	25,201.0	28,718.3	36,061.3	37,518.6	7,927.6	9,709.1	10,411.3	9,470.6	8,117.8
법인 소득세	7,077.4	8,298.8	9,085.7	10,115.1	1,351.2	3,659.4	3,658.0	1,446.6	1,789.7
개인 소득세	4,131.5	4,626.5	5,530.6	6,288.1	1,330.7	1,446.8	1,928.2	1,582.4	1,632.8
상품 서비스세	3,814.9	3,960.1	5,612.3	6,632.1	1,514.6	1,767.7	1,841.5	1,508.3	1,369.2
기타 세수입	10,177.2	11,832.9	15,832.7	14,483.3	3,731.1	2,835.2	2,983.6	4,933.3	3,326.1
기타 수입	2,915.5	2,354.1	3,454.6	3,858.1	1,118.7	969.3	980.1	790.0	614.1
정부운영비 (세수입 +기타수입)	28,116.5	31,072.4	39,515.9	41,376.7	9,046.3	10,678.4	11,391.4	10,260.6	8,731.9

출처: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First Quarter 2009.

라. 경쟁정책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일환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발효된 경쟁법(Competition Act)은 2007년 7월에 발효가 완료되었고, 현재 싱가포르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Singapore)가 이 법을 관장하고 있다. 경쟁법은 공정경쟁을 해치는 계약, 시장 점유를 남용하는 기업, 경쟁을 저해하는 인수 및 합병을 금지한다. 同 법은 국가, 법정기관 또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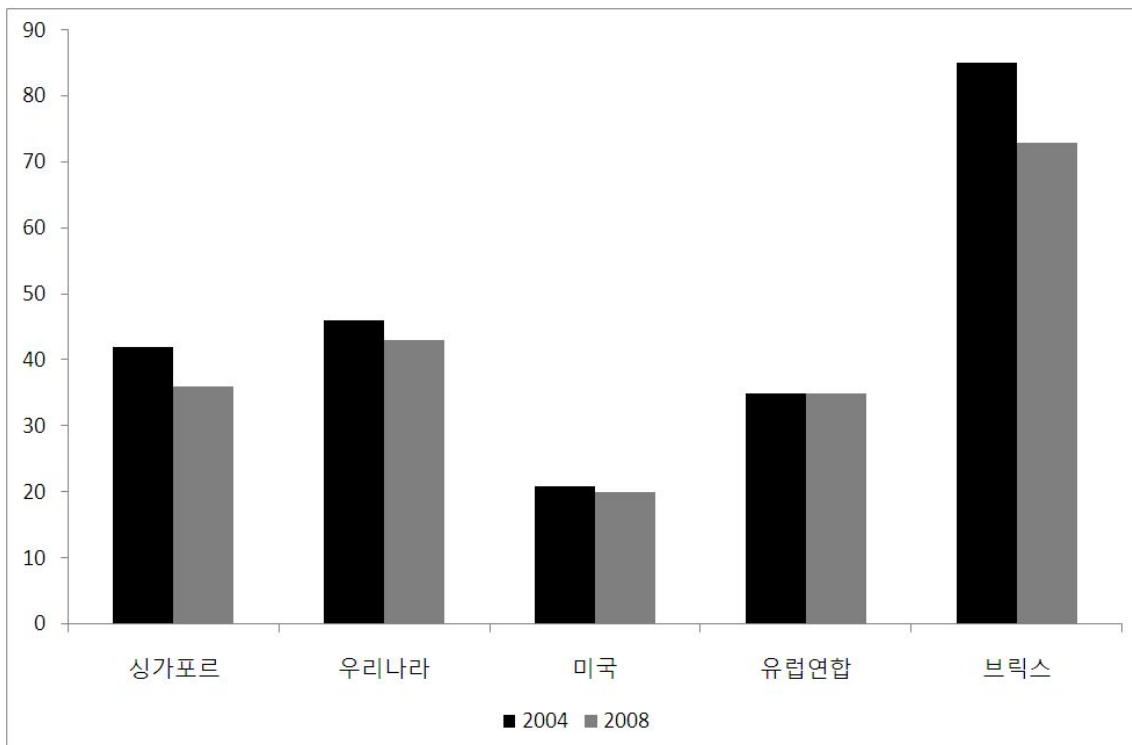
를 대표하는 기관의 활동과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에너지, 통신, 방송 등의 산업과 우편, 수돗물, 비스 및 기차 서비스 등의 활동을 제외한 부문에서 경쟁법이 과거 정부의 편익을 받은 정부연계기업 (Government-Linked Companies: GLCs)에도 적용되어 싱가포르 내 공정경쟁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 지적재산권

혁신증진과 기식지반경제를 창출하고자하는 국가목표와 뉴질랜드, 호주, 미국 등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과거 싱가포르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수동적이어서 개인이 위조품을 찾아 고발을 한 후에 정부가 법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처벌하였으나 현재는 경찰 내에 지적재산권보호부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ranch of the Police)가 위조품을 직접 찾아 나서고 있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은 지적재산권 관련법에 대해서 자문과 집행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개발 촉진을 위한 인프라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의 결과 싱가포르의 저작권 침해율이 2004년 42%에서 2008년 36%로 하락하였고, 싱가포르에서 특허와 상표권을 신청하는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7. 주요 나라 또는 지역의 저작권 침해율

(단위: %)



자료: Sixth Annual BSA and IDC Global Software Piracy Study, Business Software Alliance, 2009. 5.

바. 투자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외국인투자 비중이 고정자산투자의 90%에 달한다.

산업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현재 180억 싱가포르달러의 고정자산투자의 90.8%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화학(64.0%)과 전자(16.3%) 바이오메디칼(4.1%)에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³⁾

산업별 투자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싱가포르 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일환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바이오메디칼 연구기관인 바이오폴리스(Biopolis)와 정보통신 및 방송 연구기관인 퓨저노폴리스(Fusionopolis)를 동일한 지역에 설립하여 연구개발 시너지를 노리고 있다. 그 외에도 정부는 2005년에 iN2015 계획을 시작하여 세계 유수의 IT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의료, 교육, 금융, 운송 개

3)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First Quarter 2009. Singapor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발에도 적극적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7년 정부 부문 R&D 투자지출은 21억 싱가포르달러에 달하였다.

표 8. 기관별 연구개발 지출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1997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	2104.6	3404.7	3424.5	4061.9	4582.2	5009.7	6339.1
개인부문	1314.5	2091.3	2081.2	2590.0	3031.3	3293.0	4235.0
공공부문	790.0	1313.4	1343.3	1471.9	1550.9	1716.8	2104.1
교육	277.7	430.0	457.5	424.7	478.0	575.7	603.0
정부	216.1	449.1	435.8	442.2	442.8	518.3	770.8
공공연구기관	296.2	434.3	450.0	605.0	630.1	622.8	730.3

자료: Yearbook of Statistics of Singapore, 2009.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5.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경제학과

☐ 방문일시

- 2009년 9월 23일(수) 오후 4시 30분~5시 30분

☐ 인터뷰 담당자

- Prof. Shandre M. Thangavelu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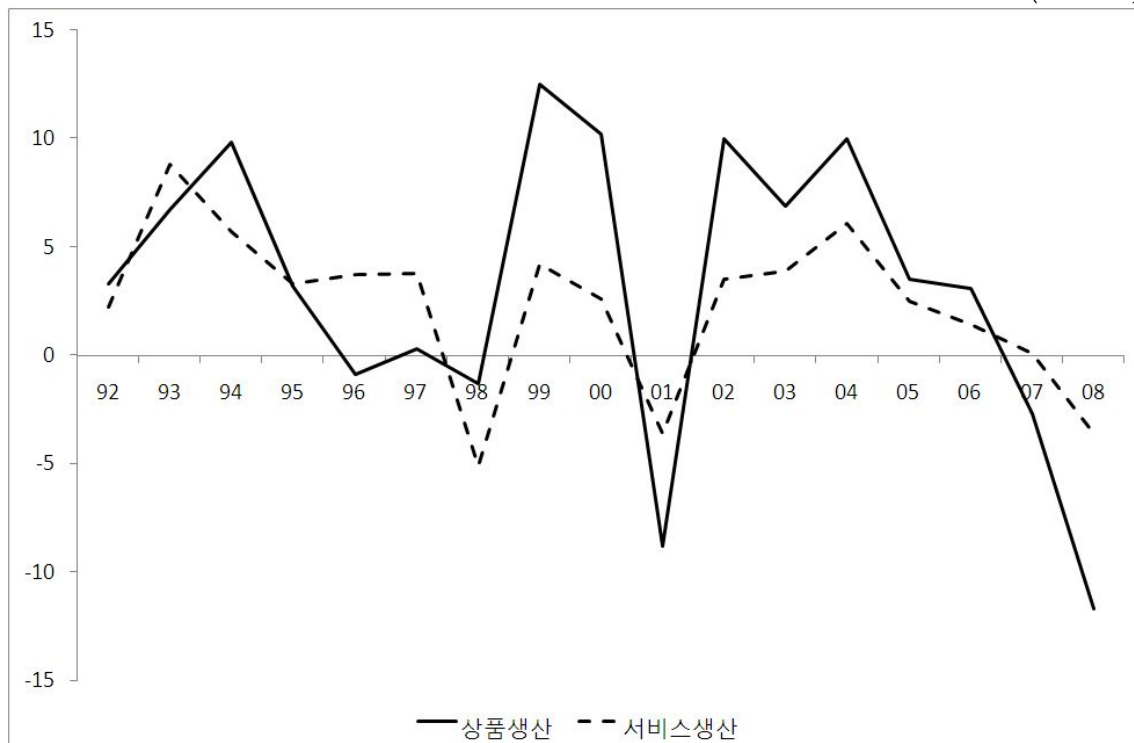
가.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서비스생산은 GDP의 2/3를 차지하고 이 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노동생산성은 상품생산의 노동생산성보다 느리다. 그리하여 활황기인 1999~2000년과 2002~2004년 상품생산의 노동생산성이 1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데 반해 서비스생산의 노동생산성은 이 수치에 크

게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서비스생산의 노동생산성은 상품생산의 노동생산성만큼 변동 폭이 크지 않아 2001년과 2008년과 같은 불황기에도 노동생산성이 모두 -3.6% 하락하는 데에 그쳤다. 이와 같이 특정 기간에 서비스생산의 노동생산성성장률이 상품생산의 노동생산성성장률과 큰 차이를 보였지만, 그 변동 폭이 작은 이유로 1992~2008년 중 이 두 부문의 노동생산성성장률은 각각 3.2%와 2.3%로 활황기 때만큼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8 .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증감률 추이

(단위: %)



자료: Singstat Time Series On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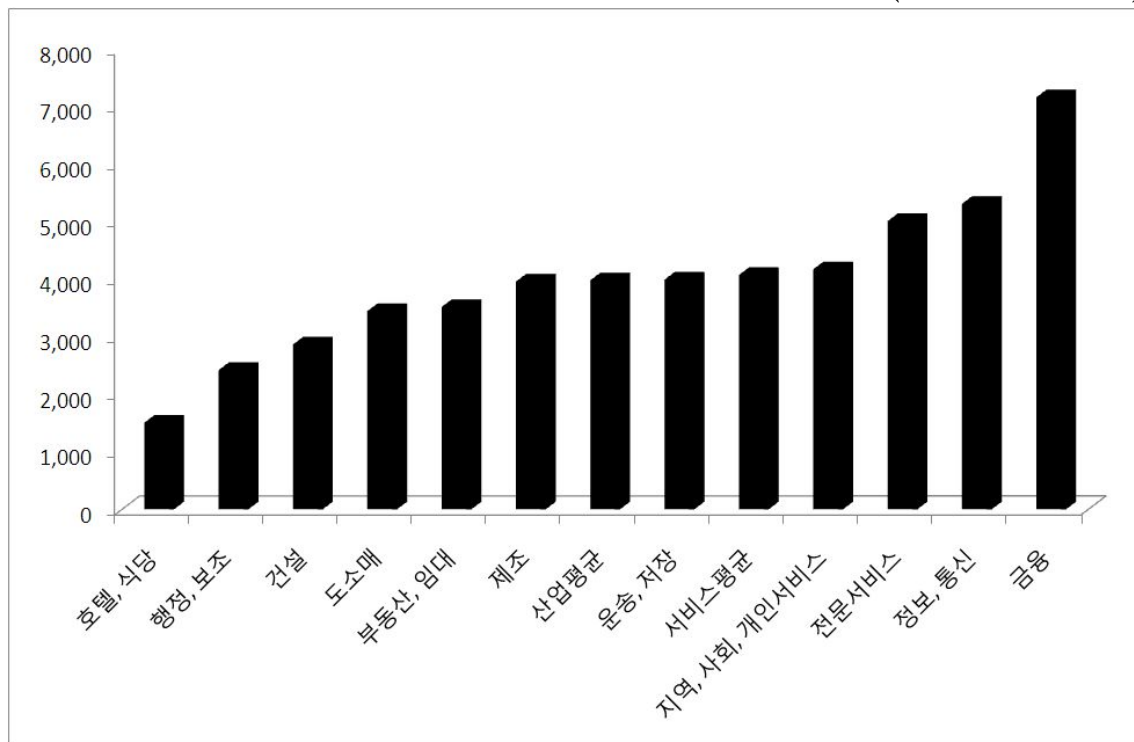
나.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평균월급

서비스생산과 상품생산의 노동생산성성장률이 비슷한 만큼 이 두 부문의 임금도 큰 격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품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평균월급과 서비스생산 전체의 평균월급은 산업전체의 평균월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 생산부문 간 월급 격차보다 서비스생산 내의 월급

격차가 오히려 크게 나타났다. 금융을 포함해서 정보통신, 전문 서비스 등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산업에서 평균월급이 높고 정보통신의 기술의 혜택을 적게 받는 부문의 평균월급이 낮다. 2008년 월급 분포의 양극단에 위치한 금융 부문과 호텔 및 식당 부문의 임금 격차는 5,649싱가포르 달러(=7,153싱가포르 달러-1,504싱가포르 달러)였다.

그림 9. 서비스산업 부문별 명목월급 (2008년 기준)

(단위: 싱가포르달러)



자료: Singstat Time Series Online.